

에이즈검사 목적의 헌혈은 안된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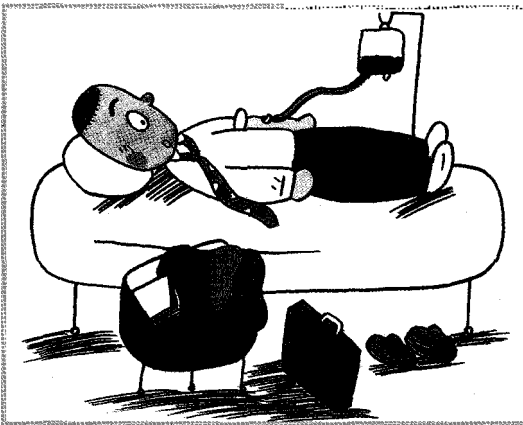
이용래 / 혈액수혈연구원

우리 나라의 경우 전국민의 약 5%정도인 250만 명 이상이 헌혈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. 대한적십자사는 이 혈액을 채혈하여 혈액형 검사와 B형 간염, C형 간염, 간 기능검사와 매독검사, 그리고 에이즈항체검사를 전 헌혈 혈액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. 이 모든 검사는 헌혈 혈액을 수혈용으로 사용해도 안전한가를 보는 검사이지 통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는 아니다. 대한적십자사는 이런 검사를 거쳐 모든 검사 상 음성인 혈액에 대하여 수혈용으로 공급하고 있다.

특히 에이즈항체 검사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타 질병에 비해 그 미치는 파장이 큰 것을 감안하여 적십자에서는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. 1차 검사기관(혈액원)의 검사과정을 거친 후 조금이라도 이상결과를 보인 혈액은 2차 검사기관(혈액수혈연구원)에서 부가선별검사 및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다시 3차 기관인 국립보건원으로 확진검사를 의뢰하여 최종확진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, 이러한 몇 단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서야 비로써 최종검사결과를 확인하게 된다. 이런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헌혈혈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수혈로 인한 HIV 감염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.

검사결과 통보의 경우 과거에는 헌혈자 혈액검사 통보 시 에이즈 검사 결과도 통보해 주었지만 정부와 협의를 거쳐 1997년 3월부터 헌혈자 혈액검사 통보항목에서 제외시키고 있다. 이는 헌혈혈액검사 결과 통보 시 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, 또한 에이즈 검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이다. 검사목적의

헌혈은 순수한 의도의 헌혈보다 HIV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혈액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. 이런 검사가 목적인 헌혈자는 짧은 기간 동안 빈번한 헌혈빈도를 나타낸다. 이런 빈번한 헌혈에서 HIV 감염인으로 관



명될 경우 이전 헌혈의 혈액 속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따라서 이들의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가 HIV에 감염될 확률은 일반 헌혈보다 더 높아진다.

만약 단순히 에이즈검사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이나 익명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보건소 등을 이용하여 검사하고 생명과 직결되는 헌혈은 가능하면 자제해주기를 바란다. 또한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에이즈 전파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. ④